

‘民主의 이름으로’, 인니 작가들의 눈으로 담아낸 광주의 속살

2024 미로레지던시 결과보고전 ‘검은빛 깊은눈’...24일까지 예술공간집

국가 폭력에 맞선 ‘자카르타·광주’, 증언의 역사 공유 어둡고 깊은 고통의 흔적...예술적 시선으로 펼쳐내

인도네시아의 유망한 현대미술 작가들이 역사적 흔적을 담고 있는 광주 곳곳을 깊은 예술적 시선으로 탐색한 결과물을 선보인다.

오는 24일까지 예술공간집에서 진행되는 2024 미로레지던시 결과보고전 ‘검은빛 깊은눈’이다.

전시에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국제적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온 아리프 부디만(Arief Budiman), 마리안토(Maryanto), 랑가 푸르바이아(Rangga Purbaya)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아티스트 콜렉티브 루앙마스56 공동대표 위모 암발라 바양(Wimo Ambala Bayang)까지 총 4명 작가가 참여한다.

문화영 예술공간집 대표와 이은하 콜렉티브 오피스 대표가 공동으로 전시를 기획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한국 광주는 독재에 맞서 민중의 힘으로 민주주의 탄생

을 촉발한 중요한 도시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자카르타의 1998년 5월과 광주의 1980년 5월은 국가 폭력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단결했는지 증언하는 역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통점에 주목해 참여작가들은 예술적 의식을 가지고 광주를 더욱 친밀하게 들여다보며 각자의 작품세계로 확장시켰다.

이들 작가들은 광주 동구 미로레지던시 기간인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광주의 역사·문화를 탐색하며 제작한 신작 등 20여점을 선보인다. 어둡고 짙은 빛으로 채워진 사진, 영상 작품 등은 그들 시선에서 바라본 광주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이야기다.

마리안토는 광주 곳곳을 스케치한 드로잉과 기존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랑가 푸르바이아는 인도네시아 역사를 모티브로 재구성한 영상 작품과 광주에 머무르며 촬영한 스냅사진을 함께 보여준다.



오는 24일까지 예술공간집에서 진행되는 ‘검은빛 깊은눈’ 전시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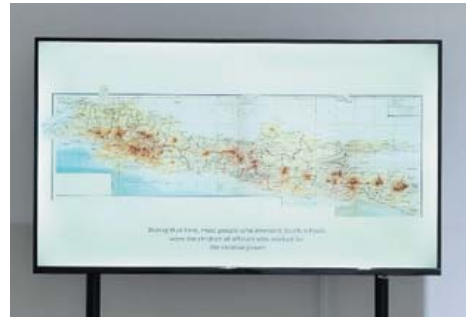
아리프 부디만은 5월의 광주와 자카르타 시민들의 기억의 조각을 엮어 짧은 영상을 제작했다. 자카르타와 광주의 5월 동안 영화관 매표소에서 일했던 두 극장 직원의 일상을 담은 이야기다. 주인공들은 직접적인 사건에 직면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전해들은 이야기는 마음속에서 마치 끝나지 않는 전쟁영화처럼 펼쳐진다.

지난 9·10월 두달 간 호랑기시나무장작소 레지던시 작가로 광주에 머문 위모 암발라

바양은 인도네시아 사회·정치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담은 사진 5점을 선보인다.

문화영 대표는 “짧은 기간이지만 광주에서 깊은 사유의 시간을 보낸 작가들이 바라본 광주를 또다른 예술적 시선으로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하 대표는 “현대미술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광주 미술이 지속적 교류를 통해 더욱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랑가 푸르바이아작 '나는 폭풍 속의 나뭇잎이다'



위모 암발라 바양작 'Belief and Seeing are Both Often Wrong'

‘무등 퀘렌시아’...사유하고, 기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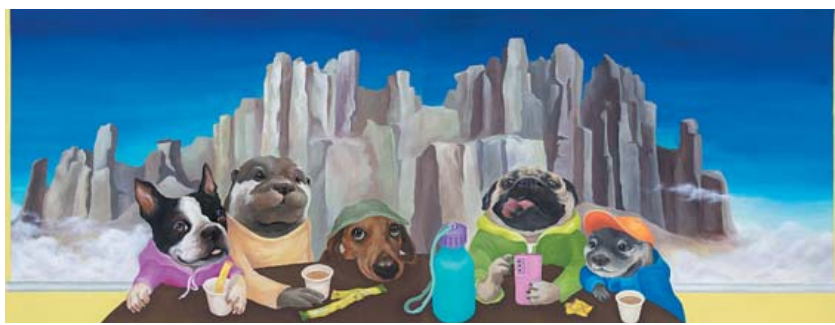
내달 1일까지 국윤미술관

퀘렌시아, 투우장의 소가 경기에 지친 몸을 잠시 추스르며 에너지를 비축하는 장소를 뜻하는 스페인어다.

‘무등산’이라는 존재를 통해 예술이 숨을 고를 수 있는 장소, 무감각을 깨뜨리는 장소를 표현해낸 작품 전시가 마련됐다.

국윤미술관은 다음달 1일까지 창작 공간지원 사업 무등산 예술산책 ‘무등 퀘렌시아’를 개최한다. 광주시, 광주문화재단 후원 창작공간지원 프로그램 일환인 이번 전시는 지난 8월부터 입주한 흥림창작스튜디오 271 작가 이두환, 이진상의 창작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다.

이두환 작가는 무등산을 매개로 기억을 소환한다. 도심을 감싸는 자연의



이진상작 '집들이'

송고함과 누군가와 함께한 차 한잔의 파스함, 그 감각의 경험이 작품 속에 묻어나온다. 그의 작품에서 무등산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기억과 관계를 매개하는 장소로 표현된다.

이진상 작가는 무등산이 우리에게 주는 휴식의 이미지를 가져와 자신만의 장소에 대한 사유를 드러낸다. 작가는 병풍과 같은 이미지 배치를 통해 방

해 요인들로부터 공간적 구획을 시도하며,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해 휴식과 치유의 심상을 드러내고 있다.

국윤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의 대상이자 상상력의 무한한 원천인 ‘무등산’에 대한 지역적 가치와 의미를 재고하며 이를 지역민들과 향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오늘, 다시 되돌아 본 ‘천경자의 색’

천경자 탄생 100주년 기념 연계전 ‘색채의 향연’...내달 15일까지 남포미술관

남포미술관이 화가 천경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연계 전시를 마련했다.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색채의 향연’이다.

이번 전시는 천경자 화백이 추구하던 채색화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자리다.

전시에는 천경자와 동시대 활동했던 박래현을 비롯해 천경자의 제자인 이숙자, 이당과 윤보의 전통을 계승한 오태학, 민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다양한 실험을 추구해온 김근중, 중앙대학에서 오태학의 채색화를 학습한 제자들인 서정태·김진관·김선두, 채색화와 염색·설치 작업을 통해 영역을 확장해온 정종미, 청년 작가 장원주와 박상미 등 10명 작가가 참여

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소개되는 채색화 작가들은 한국 채색화의 흐름과 역사의 노정에서 중요한 이들도다.

선배배 가교역할을 담당했던 60-70대 작가들은 1980년대 중후반 채색화 붐이 형성될 때, 그 중심에 있던 이들이다. 전통으로부터 채색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기법과 소재, 매체를 다양하게 실험했다.

또한 재료에 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동서양화나 채색, 수묵의 오랜 갈등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정종미 작가 작품도 눈길을 끈다.

수묵과 채색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신들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그들의 사유 속 전통회화의 특성을 현



정종미작 '수(水)'

대화하고자 하는 젊은 작가들 작품까지 다채롭다.

/최명진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FREE 동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